

문화예술축제로 낭만·활기가득한 목포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목포야행 등 즐길거리 풍성 특색있는 자원 활용으로 '살아있는 근대박물관' 연출

목포의 2018년 가을이 낭만과 활기로 가득차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목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예방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도시답게 마당극, 미술작품, 근대건축물 등 문화예술이 가을을 채우고 있다. 이달부터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가을의 서정을 더하고 있다. 남종화의 본산인 목포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갤러리 등에서 오는 10월까지 수목화의 맛을 감상할 수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성업씨는 "풍경화 등 전통적인 수목화를 주로 접하다가 현대적인 주제를 수목으로 표현한 추상화까지 감상할 수 있어서 신선했다. 수목화만이 갖는 매력이 색다르게 표현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풍성한 가을을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만이 갖는 또 다른 특색있는 자원은 원도심 근대역사거리의 근대건축물이다. 근대역사거리 일원은 120년 전 조성된 근대 도로와 골목길, 일본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원형대로 남아있어 살아있는 근대박물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도로 폭이 넓지 않고, 건물 높이가 낮아 거닐고 싶은 공간감을 갖고 있다. 근

대역사거리 일원의 시대적, 공간적 특색을 활용한 문화향유프로그램인 '목포야행'은 지난 7-8일 최초로 열려 가을밤 나들이객을 불러모았다. 선선한 날씨, 2km에 걸쳐 설치한 정사조동, 길거리 곳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가을밤의 낭만과 운치를 더했다. 1차를 성황리에 마친 목포야행의 2차 행사는 다음달 26-27일 전시, 체험 위주로 열릴 예정이다. 목포의 또 다른 자랑인 수산물과 향구도 가을에 활력을 더하는 견인차다. 목포의 가을 대표 수산물은 갈치다. 갈치가 목포 해역으로 몰려드는 시기를 맞아 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갈치낚시어선 57척의 평화광장 앞바다 낚시영업을 허용했다. 평화광장 앞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고, 갈치도 많이 잡을 수 있는 어장이다. 손맛과 마릿수 재미를 만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낚시객이 모여

들면서 평화광장 앞바다는 밤에 집어들어 낚시배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목포 가을의 백미는 '목포향구축제'다. 향구축제는 작년부터 무더운 여름을 피해 성어기인 가을에 열린다. 올해는 다음달 5-7일 목포향구와 삼학도 일원에서 '신명나는 파시 한 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파시는 파도 위의 시장이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부두가 좁아 배 위에서 시장이 열렸다. 목포시는 활력과 약자지결함으로 가득해 향구의 정과 특색이 넘쳤던 파시를 축제의 길러콘텐츠로 활용한다. 파시의 매력은 갈치, 조기, 병어, 민어, 전어, 낙지 등 싱싱한 해산물을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생(魚生) 그랜드 세일, 선상 어물전 경매&중매인 체험, 파시 어물전 난장, 파시 수라간 등을 찾으면 흥정의 재미와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진도군이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개최한 '진도 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기획전'에 참가해 큰 성과를 거뒀다. /진도군 제공

진도 농수특산물 수도권서 인기몰이

경기도 용인 기획전서 매출 3천여만원 성과 거둬

진도군이 청정 농수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수도권에서 판매 기획전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최근 개최한 '진도 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기획전'에 6개 업체가 참가해 50여개의 품목을 선보이며, 3천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날 진도 아리랑 농수산물 시식·시음을 비롯 진도쌀 홍보와 사은품을 증정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진도 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홍보·판매 행사와 함께 진도군 농수특산물과 관광 홍보 안내문도 함께 배부했다. 특히 진도군은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현대백화점과 다음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 '농수산물 기획전'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한길준 기자 gihan@

롯데·현대백화점 등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도군은 100여개 품목을 선보이면서 '청정 진도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는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진도군 마케팅담당 관계자는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판매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어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기 위해 수도권 농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매년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 공략을 위해 대형유통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직판 행사를 개최, 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진도=한길준 기자 gihan@

해남, 9월 기초연금 최대 인상폭 적용 지급

오는 9월부터 해남군의 기초연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액은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대 인상폭으로 단독가구 수급시 최대 월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 수급시 최대 각 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전 수급액은 단독최대 20만9천960원, 부부수급 최대 각 16만7천960원이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며, 미리 상담을 받아 보고 신청하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남군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어르신들의 경우 복지혜택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2013년부터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남=윤규진 기자 jin2001@



영암, 왕인문해학교 현장체험 영암군은 올해로 제11기를 맞은 왕인문해학교에서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학습자 800명을 대상으로 도기박물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영암군 제공

강진, 주민 의견 반영한 내년 본예산 편성

강진군은 부서별 예산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 회의의 2019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편성일정을 알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교육 과 질의응답으로 약 120분간 진행됐다. 특히 예산 편성을 앞두고 숙지해야 할 예산 편성 기준 개정사항, 예산 요구 전이

행해야 하는 사전절차, 실무자가 틀리기 쉬운 예산 상식 등을 알렸다.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어 내년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아울러 강진군은 평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홍보 및 실시 중이며, 지난달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다음 달 중순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열어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의 의견을 통해 올해 5억8천만 원을 들여 4개 사업을 추진했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완도, 2018년 하반기 평생교육원 개강

12월까지 21개 과목·59개 과정 개설...군민 1천535명 참여

완도군은 하반기 평생교육원 개강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개강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이승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박정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담당강사 및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년 하반기 평생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21개 과목, 59개 과정을 개설해 12개 읍·면에서 1천536명의 군민이 참여하게 된다. 59개 과정 중에는 동양화, 서예, 사진, 노래, 난타, 창작 무용, 요가, 필라테스, 댄스 스포츠 등이 있으며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남에 따라 악용 식품 관리사, 현대인의 건강관리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완도군이 평

생학습도시 지정 및 여러 가지 공모사업 선정 등 평생교육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두 대학의 협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군민들에게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는 평생학습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서 노르딕워킹 등 해양치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군이 이처럼 활발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도서 읍·면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군민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천한 군의 해안과 군민회의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